

어려워진 수능, 진학지도 비상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서 가·나형을 아우른 수리영역과 외국어(영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중하위권이 대다수 분포한 지방 학생들 진학지도에 비상이 걸렸다.

수리영역의 경우 학생들의 실력차가 커 문제가 어려워지면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수리영역의 표준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과목에서 만점을 맞은 수험생보다 많게는 20점까지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영역도 선택과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지난해 쉬웠던 과목은 다소 어렵게, 어려웠던 과목은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석산고 정현 진학부장은 “지

수리·영어에 성적…지방학생 불리 중하위권 눈치작전 더 치열해질 듯

난해 수리가형에서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서인지 수리영역의 난이도가 높게 형성된 것 같다”며 “수리영역의 변별력이 확실해졌을 때 지방 학생들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도 “수리와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이 이번 대입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며 “난이도의 차이로 본다면 영어보다 수리가 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일고 박성근 진학부장은 “이번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성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하위권에게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하위권에서는 눈치작전 등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학담당 교사들은 전문가들의 출제경향 분석만으로 실망부터 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광장심을 유지하고 남은 기말고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능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다.

대성여고 김창현 진학부장은 “중하위권 학생들 중 수시2학기 전형에 조건부 합격을 한 경우가 꽤 많은데 만점이나 구술 등을 재빠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 대학들은 수능 이후에 수시2-2 모집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여고 정계훈 진학부장은 “이번 수능이 지난해보다는 확연히 어려웠지만 6월과 9월 모의고사와는 크게 난이도 차이가 없었던 만큼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해서 더 잘 나왔다면 소신지원을, 조금이라도 점수가 낮아졌다면 안전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친환경농산물 '엉터리 인증'

보조금 4억여원 쟁기 전·현직 임원 6명 적발

멜라민 공포 등으로 인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하는 기관의 전·현직 임원들이 엉터리 심사를 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거액의 보조금을 행운을 사설이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13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부실하고 비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지자체

등 총 4억3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전남 19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분석비와 출장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챘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개인당 5천500만원~9천100만원 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와 손씨 등 4명은 전직 농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으로 뇌직 후 곧바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설립했으며,

비료 농약 판매상이자 이 법인의 비공식 심사원인 1명은 자신이 직접 작목비를 만들어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10월 농관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 법인은 지난해에만 쌀을 비롯해 무·배추·양파·재배 등 1만6천 934개 농가가 1만 7천898㏊에 대해 신청한 1천171건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해 줬다. 이는 광주·전남의 12개 인증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른 11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산지 배추 폐기 전남도가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 생산된 전남산 가을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대규모 산지 폐기 처분으로 한 가운데 13일 영암군 신복면 용산리에서 한 농민이 자신의 배추밭(3천여평)을 갈아 엎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민간 대행 이후 부실…전남 친환경농업 차질 우려

■ '엉터리 인증' 왜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대행해온 한 민간기관이 엉터리 심사를 해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면서 '인증업무의 공신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친환경 농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전남도는 이번 사건이 친환경농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 인증

을 받은 면적이 최근 2~3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8만4천㏊(9월 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남도 내 전체 경지면적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2만㏊가 고품질 친환경인증 등급인 무농약·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전남도 내 6만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40억 원이 인증비용으로 지급된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친환경 인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국가기관이 인증업무를 수용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

면서 지난 2002년 이후 민간기관 12곳에 인증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 이번 사건 발생의 빌미가 됐다.

실제 이날 검찰에 적발된 'N 친환경'은 분석비·출장비를 부풀리는 것 외에도 전혀 심사를 하지 않고 인증서를 발급하기도 했고, 심사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심사를 하기도 했다.

특히 수질·토양 등 시료채취를 직접 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택배로 받아 분석의뢰하거나 시료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인정서를 발급한 것

도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농가에서 제출한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심사를 신청하면 전남도 내 22개 시·군 가운데 5개 군은 인증 비용의 100%, 17개 시·군은 60~70%를 각각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았을 때에만 지급됨으로써, 인증기관으로서는 많이 인증해주면 해출수록 '남는 장사'가 돼 부실 인증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검찰수사로 친환경 인증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업 자체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총행기·최권일기자 redplane@

'대포차' 석달새 200여대 유통

중고차 매매업자 2명 구속

는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포차 212대를 만들어주고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브로커들로부터 알선을 받아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당 25만원 가량을 받아 쟁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마야·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3일 실제 소유자와 등록증상의 명의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주고 수 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쟁기 중고차 매매업자 김모(28)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광산구 흑석동에 B자동차 매매장을 차린 뒤 차량 소유권을 자신의 중고차 매매사 명의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받

여장남자, 편의점서 나체쇼

○광주북부경찰은 13일 여장(女裝)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선보인 A(43·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를 공연음란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9시20분께 광주 북구 용두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B(19)양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여성 가발에 텁스틱을 바른 뒤 카마와 스타킹까지 입은 A씨는 여성 홀로 근무 중인 것을 미리 확인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여종업원 앞에서 카마와 스타킹을 벗고 '나체 쇼'를 했는데,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종업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나체 쇼'를 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뜻정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오는 14일**

15~16일 조양조 17~18일 승대관 20~21일 험진회 25일 박현빈 27~28일 김수희 4~5일 협운도

장윤정 호박 나이트